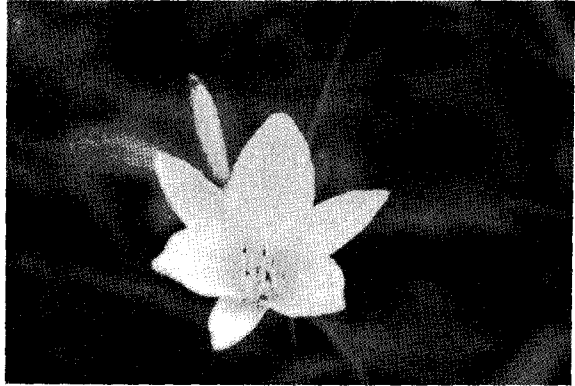


# 원추리



활짝 핀 원추리꽃, 10~13cm 크기의 노란꽃이 6~7월에 핀다.

정 연 권 구례군 농촌지도소

원추리(*Hemerocallis fulva* L.)는 백합과에 속하는 내한성 숙근초다. 근심걱정을 잊게 한다 하여 망우초(忘憂草)라 하기도 하며 서양에서는 데이릴리(하루피는 나리)라 부르고 있다.

절화, 화단 및 분화용으로 적합하다. 어린 싹은 넘나물 이라하여 산채로 이용해 왔으며 뿌리는 약용으로 사용하고 꽃역시 식용으로 사용하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슬픔의 배출구 역할을 하는 자생화초이다.

## 1. 특성 및 성분

원추리 꽃은 길이가 10~13cm

이며 황색으로 6~7월에 핀다. 잎 사이에 1m정도의 꽃줄기가 곧게 자라 올라와 6~8개의 꽃이 매일 차례로 피고 진다.

개화습성은 낮에 피는 주간개화형과 오후 늦게 개화하여 밤새 피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시드는 야간개화형,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피거나 오후 4시에 개화하여 이튿날 정오까지 피어있는 주야간개화형이 있다.

꽃모양은 원형, 삼각형, 별모양, 자유형이 있고 학명인 *Hemerocallis*는 태양(*Hemeris*)과 아름다운의 합성어로 하루의 아름다움이란 뜻이다. 또한 꽃봉오리는 맛

이 좋고 소화흡수가 잘되어 샐러드 용이나 화주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원추리 꽃나물이 “금침채”라하여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줄기는 없으며 뿌리로 부터 자라 나온 잎이 밑동에서 겹치고 윗부분은 좌우로 갈라져 휘어진다. 어린싹은 새봄에 뜯어 나물로 이용하는데 영양가가 높고 독특한 미각을 가지고 있다(표1).

뿌리는 끝이 비대한 방추형 괴근으로 아르기닌(Arginin), 아데닌(Adenin), 콜린(Cholin)등 아미노산류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

다. 생약명으로 흰초근(萱草根), 의남(宜男)이라 하는데 여성의 몸을 보해주고 이뇨, 지혈, 소염 등에 쓰이고 있다.

## 2. 주요 종류와 특성

원추리 주요종류는 표2와 같다.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꽃이지만 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연구와 육종에 몰두하여 많은 품종들을 만들어냈다. 그 주요 품종은 캐리 퀴, 알란(적색), 크레스트우드 앤(황분홍), 크레스트우드 이브닝(등황), 크레스트우드 골드(농황), 크레스트 린다(담

표1. 원추리 영양 분석표

(가식부 100g 당)

에너지	수분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폐기물	
				당질	섬유소	회분	칼슘	인	철	A	B <sub>1</sub>	B <sub>2</sub>	나이신		C
kcal	%	g	g	g	g	g	mg	mg	mg	IU	mg	mg	mg	mg	%
31	87.1	5.2	0.3	4.4	2.1	0.9	27	72	2.3	3.402	0.11	0.13	2.2	37	8

※자료 : '91식품성분표(농촌진흥청 농촌영양개선연수원)

표2. 원추리 주요 종류 및 특성

종명	분포	꽃색	개화기	꽃대길이	특성
원추리	전국	황색	7월	100cm	주간개화
각시원추리	〃	〃	6~7월	60cm	유향, 주간개화
골잎원추리	전남, 경기	〃	7월	60cm	주간개화
홍도원추리	남부해변	등황색	8~9월	100cm	주간개화
큰원추리	전국	〃	6월	60cm	유향, 주간개화
애기원추리	〃	담황색	6~7월	100cm	유향, 야간개화
노랑원추리	〃	황색	6~7월	100cm	야간개화



지리산 노고단에 무리지어 핀 원추리꽃

황), 크레스트우드 루이시(담주홍), 모니카 앤(연분홍), 사틴 글라스(황분홍), 완더 보이(순황) 등이 있다.

우리나라 원추리 군락지는 지리산 노고단(해발 1506m)으로 군락을 이루어 7~8월 황금색 꽃이 안개속에 함초롬히 얼굴을 내밀고 물결 치면서 한여름 장관을 연출한다.

끝없이 운해가 밀려오는 노고단 정상에서 원추리꽃을 바라 보노라면 세상살이의 복잡함과 고통, 신의와 분노, 절망과 좌절, 배신과 미움등 모든 추악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희망과 용기가 샘솟듯 솟

을것 같고 신의와 사랑이 물결칠것 같다. 이 아름답고 거룩함을 주는 꽃앞에는 악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두다 선남선녀요 철학자이며 예술가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자생화초의 묘미가 있다.

### 3. 절화(산채) 재배

#### 가. 재배적지

생명력이 강하여 어느 곳에서나 잘자라지만 물빠짐이 좋고 부식질이 많은 토양이 좋다. 전국 어디서나 재배 가능하고 잘 자란다.

#### 나. 번식

**실생** 8월경 꽃이진후 9~10월에 채종한다. 10a에 필요한 종자

는 2~3l이며 채종한 종자는 모래와 1:1로 섞어서 층적 저장한다.

4월상중순경 그림1과 같이 넓이 90cm로 묘판을 만들어 15~20cm 간격으로 조파하고 종자가 0.5cm 정도 묻히도록 흙을 덮고 짚으로 피복한 후 충분히 관수한다.

과종전 종자를 물에 2~3일 정도 담갔다가 과종하면 발아율을 높일 수 있다. 발아하는 것을 보면서 짚을 제거하고 3~4cm 간격으로 솥음작업을 한다. 체초는 철저히 하고 건조할 때는 가끔씩 관수하여 생육을 좋게한다. 실생묘는 2~3년 후면 개화한다.

**분주** 한 포기당 눈이 2~3개 되도록 11월이나 3~4월에 실시한다. 보통 5~6년에 한번씩 실시하는데 분주한 당년에는 꽃이 빈약하다.

### 다. 시비

다비성 식물이므로 비옥하게 해야 수확량이 많아진다. 10a당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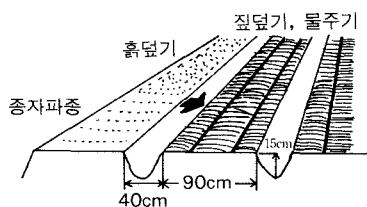


그림1. 원추리 파종상

숙퇴비 3,000kg이상, 계분 200kg, 복비(18동율) 60kg이상을 밑거름으로 넣고 잘 경운한 후 심고 웃거름은 6월하순과 7월하순경 유기질 비료를 10a당 25kg(1포)정도 전면에서 살포한다.

### 라. 정식

실생묘는 1년정도 육묘후, 분주묘는 분주 즉시 심는다. 3월하순에서 4월 상순경이 좋으나 11~12월경도 무난하다.

두둑은 90cm, 통로는 40cm로 하여 그림2와 같이 절화시는 20~25cm간격(3조식)으로 심고 산채용으로 할때는 15~20cm 간격으로 심되 뿌리만 묻힐 정도로 얇게 심는다. 발아시와 개화기에 건조를 막기 위해선 두둑중앙에 관수호스(고설식)를 설치하여 물주는 노력을 줄이고 생육을 좋게한다.

### 마. 기타관리

건조하지 않도록 관수에 신경을 쓰고 배수도 잘 되도록 배수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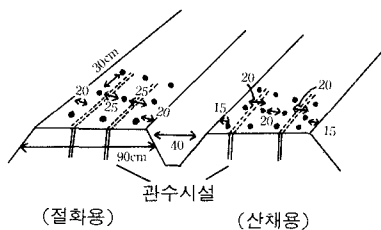


그림2. 원추리 정식요령



수확적기를 맞은 원추리. 4월경 15cm 정도 자란 어린 새싹이다.

정비한다.

2년차 이후에는 3월중하순경 유기질비료를 10a당 50kg정도 뿌리고 관리를 이용하여 복토한 후 라쏘등 제초제를 살포한다. 서리가 온후 고엽을 제거하고 라쏘등을 살포해 놓으면 겨울동안 잡초발생이 없어서 봄에 작업하기 좋다.

병충해는 거의 없는 편이나 진딧물 발생이 심하므로 진딧물 방제에 신경을 쓰야 한다.

#### 바. 수확

어린 새싹은 4월경 15cm정도 자랐을때 손이나 칼로 잘라 조제 후 요리해 먹거나 200~300g 단위로 소포장후 출하한다.

절화는 꽃봉오리가 물들때 가위로 잘라서 흡수 시킨 후 5대를 1단으로 묶어서 출하한다.

## 4. 분화재배

원추리는 꽃대가 곧게 힘이 있고 잎이 밑으로 휘어져 분화재배의 운치를 더해 준다. 화분은 9~10호를 사용하되 플라워박스가 더 좋다.

새싹이 돌기 전에 가급적 얇게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물은 마르지 않도록 2~3일에 한번씩 물집에 물이 차도록 주고 장기간 외출시에는 그림 3과 같이 분접시에 화분을 놓고 가면 4~5일 정도는 무난하다. 기타관리는 절화재배에 준하고 3~4년에 1번씩 분갈이를 하면된다.

## 5. 화단재배

원추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난초라하여 옛부터 장독가나 화단에 심어서 감상하여 왔다. 특히 고되고 서러운 시집살이를 장독대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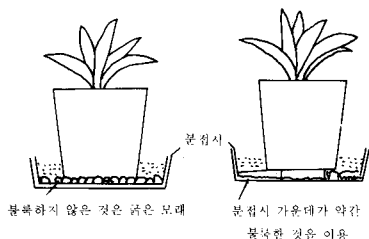


그림3. 외출시 분화관리요령



조제한 원추리순. 요리해 먹거나 200~300g 단위로 포장후 출하한다.

에 원추리를 심고 그 꽃을 보면서 잊어 왔다고 한다.

원추리는 6~7월 여름화단을 장식할 수 있는 적합한 화종이다. 주드베키아나 페튜니아등을 심는 자리에 우리꽃 원추리를 심으면 꽃도 오래가며 날마다 새로운 맛을 볼수 있고 한번 심으면 5~6년간 다시 심을 노력도 필요없으며 더욱이 우리꽃의 포근함과 다정함을 만끽함과 동시에 어린이 교육 장소로도 훌륭하다.

심는시기와 관리는 절화와 화분 재배에 준하나 가로화단에는 30×30cm(2조식) 간격으로 심고 집안 화단에는 30×25cm로 원형이나

타원형 등으로 심는다.

원추리잎이 무성하거나 진딧물 등 피해를 받아서 잎이 상하여 관상가치가 없을때는 꽃대가 올라오기 한달전(5월하순~6월상순) 예리한 칼이나 낫으로 잎을 완전히 제거하고 톱밥이나 왕겨로 피복한 후 충분히 관수한다. 2주후부터는 새잎이 나오고 서서히 꽃대도 올라와 깨끗한 새잎과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원추리꽃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재배법은 이 화단 재배법으로 생각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 꽃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